

# 증상 없는 뇌동맥류...극심한 두통 전조증상

### 혈액 압력 이기지 못하고 부풀어 오르는 현상 전국민 2% 발병...혈압 관리하고 담배 끊어야

**뇌졸중 의심 증상**  
핵심은 '갑자기'

- 갑자기 한쪽 얼굴이나 팔다리가 힘이 없거나 저리고 감각이 없다.
- 갑자기 발음이 어둔하거나, 말을 이해하지 못하거나 무슨 말을 하는지 알아들을 수 없다.
- 갑자기 주위가 뻘뻘 도는 것처럼 심하게 어지럽거나, 술 취한 사람처럼 휘청거린다.
- 갑자기 한쪽이 흐리게 보이거나, 잘 안 보이거나, 이중으로 보인다.
- 갑자기 심한 두통이 있거나, 의식이 떨어져서 깨우기 힘들다.

뇌동맥류는 뇌혈관 중 동맥혈관의 약해진 부분이 혈액의 압력을 이기지 못하고 풍선처럼 부풀어 오르는 현상을 말한다. 증상이 심해져 혈관이 파열하면 심각한 뇌출혈까지 일으킬 수 있는 무서운 뇌혈관질환으로 꼽힌다.

뇌동맥류 환자는 혈관이 파열돼 뇌출혈이 발생하기 전까지 별다른 증상이 없는 특징을 보인다. 뇌출혈이 생기고 응급실을 찾게 되는 경우가 대부분이다. 뇌출혈이 생기면 심한 뇌 손상으로 습지거나 심각한 후유증을 겪는다.

최석근 경희대학교병원 신경외과 교수는 "뇌동맥류는 Y 모양의 갈라진 뇌혈관 중앙에 동그랗게 튀어나오다가 어느 순간 터져 심각한 뇌 손상을 유발한다"며 "발병률은 전체 인구의 2% 정도지만, 몸이 마비되거나 숨질 수 있어 조기에 발견하는 게 가장 중요하다"고 설명했다.

뇌동맥류는 대개 자각증상이 없으므로 건강검진이나 다른 목적의 검사에서 우연히 발견하는 경우가 많다. 간혹 부풀어 오른 뇌동맥류가 뇌신경을 압박하면서 파열되기 전에 머리 증상을 일으켜 발견한다.

뇌동맥류가 파열했다면 혈관이 이미 찢어져 있는 상태이므로 터진 부위에서 다시 출혈을 일으킬 가능성이 아주 높다. 매우 신중하게 2차 출혈을 막기 위한 뇌동맥류 치료를 시행해야 한다.

가장 흔한 치료법은 뇌동맥류 수술이다. 부풀어 오른 혈관 부위에 다는 문제가 발생하지 않도록 하는 '뇌동맥류 경부 결찰술'이 대표적이다. 이 수술법은 관자놀이 부위에 피부와 두개골(머리뼈)을 잘라내고 미세 현미경을 이용해 뇌동맥류에 접근한 뒤 부풀어 오른 부위의 목부근(경부)을 미세한 클립으로 동여맨다.

혈관 내 색전술도 뇌동맥류를 치료할 수 있다. 이 치료법은 머리를 절개하지 않고 뇌동맥류를 치료할 수 있다. 우선 대퇴부(허벅지) 동맥에 미세한 도



관을 넣고 부풀어 오른 뇌동맥류에 도달하게 한다. 이후 부풀어 오른 주머니 안에 미세한 코일을 채워 넣어 동맥류 안으로 유입되는 혈류를 차단해 파열하는 것을 막는다. 수술이 어렵거나 위험한 경우에 대안으로 시행한다.

뇌동맥류를 조기에 치료하면 일상생활에 복귀할 수 있지만, 경우에 따라서는 뇌동맥류가 재발할 수 있다. 드물게는 다른 부위의 혈관에 뇌동맥류가 새로 생길 수 있어 치료 후 정기적으로 검사를 받는 게 좋다.

안재성 서울아산병원 신경외과 교수는 "고혈압과 당뇨병에 걸리지 않도록 주의하고, 이미 만성질환을 앓고 있으면 술과 담배를 하지 않아야 발병률을 낮춘다"며 "극심한 두통이 생길 경우 즉시 병원을 찾아야 한다"고 강조했다.

## 중풍에 쓰러지면 무조건 병원행...아스피린·청심환 시간낭비

### 어눌해진 말투 위험신호...환자 25% 후유증 남아

뇌졸중은 몸이 마비되는 심각한 장애를 일으키고 심할 경우 생명까지 빼앗는 치명적인 질환이다. 뇌혈관을 다쳐 발생하기 때문에 머릿속 시한폭탄으로 불린다. 흔히 중풍이라고 부르기도 한다. 뇌혈관은 정상적인 뇌 활동에 필요한 산소와 영양분을 공급하는 혈액의 통로다. 혈관이 막히거나 터지면 뇌 일부가 손상되고 심각한 합병증이 나타난다.

뇌경색은 동맥경화증에 의한 혈관협착과 심장 등에서 떨어진 혈괴(피떡)가 뇌혈관을 막아 발생한다. 대표적인 증상은 사지마비를 비롯해 갑각·발음장애, 눈에 띄는 증상은 몸 한쪽에만 마비 증상이 생기는 것이다. 오른쪽 뇌는 왼쪽 몸의 운동과 감각기능을 왼쪽 뇌는 오른쪽 몸의 운동과 감각기능을 담당하기 때문이다.

다친 뇌 부위에 따라 다양한 증상이 나타난다. 뇌 뒤쪽 혈관에 뇌경색이 발생하면 어지럼증과 균형감각 이상, 발음장애, 시야장애, 불체가 두개로 나뉘어 보이는 복시 증상이 나타날 수 있다. 대부분의 오른손잡이 환자는 뇌경색이 발생하면 말을 알아듣지 못하거나, 하지 못하는 언어장애 증상으로 이어질 수 있다.

김범준 경희대학교병원 신경과 교수는 "통상 뇌경색 환자 5명 중 1명꼴로 미니 뇌졸중'이 발생한다"며 "일시적인 증상이 나타났다가 사라져 무심코 넘기는 경우가 많다"고 설명했다. 이어 "하지만 환자 10%가량은 3개월 이내에 재발하므로 증상이 사라졌더라도 병원을 방문해 적절한 검사를 받아야 안전하다"고 강조했다.

을 방문해 적절한 검사를 받아야 안전하다"고 강조했다.

뇌졸중 의심 증상은 갑자기 한쪽 얼굴이나 팔다리가 힘이 없거나 저리고 감각이 없는 경우다. 또 발음이 어눌해 지거나 주위가 뻘뻘 도는 것처럼 심하게 어지럽거나 술 취한 사람처럼 휘청 거린다. 갑자기 극심한 두통이 생기는 경우, 한쪽이 흐리게 보일 때도 뇌졸중을 의심해볼 수 있다.

사실 뇌졸중이 발생하면 집에서 할 수 있는 응급조치는 전혀 없다. 간혹 아스피린이나 청심환을 환자에게 먹이는데, 이런 행위 때문에 오히려 골든타임을 놓칠 수 있어 주의가 필요하다. 최신의 응급조치는 최대한 빨리 환자를 병원으로 이송하는 것이다.

남중석 세브란스병원 신경과 교수는 "뇌졸중 치료를 잘 받아도 전체 환자의 25% 정도는 후유증이 남는다"며 "응급 치료 후 재활치료를 빨리 시작하는 게 좋다"고 말했다.

뇌졸중의 재활치료는 유형에 따라 물리치료와 작업치료, 언어치료, 인지치료 등으로 나뉜다. 재활률이 5~20%에 달하기 때문에 정기적으로 검사를 받아야 합병증이 생길 위험을 줄인다.

뉴스1

## 앉아만 있으면 피 굳어...운동으로 혈관 청소를

### '피떡' 혈전...색전증·혈류 차단·뇌졸중 원인



치명적인 뇌혈관질환을 예방하려면 혈관에 혈전(피떡)이 생기지 않도록 올바른 생활습관을 기르는 것이 중요하다. 혈전은 피가 굳어서 생기는 덩어리라고 말한다. 혈전이 생기는 질환이 혈전증이다. 이런 혈전이 떨어져 나가 혈액 내에서 이동하는 것을 색전증이라고 한다.

우리 몸에는 혈전을 생성하는 인자와 억제하는 인자가 모두 존재한다. 이들이 평형을 이루고 있어서 정상적인 상황에서는 혈전이 발생하지 않는다. 그러나 혈관벽이 손상되거나, 혈류(피의 흐름)의 속도가 달라지는 경우, 혈액 성

분이 변하면 혈전이 생기게 된다. 혈전이 혈관 내에서 커지면 혈류를 차단하게 된다. 혈전이 떨어져 나가 색전이 되면 혈류를 따라 몸속에서 돌아다니다가 작은 혈관에 가서 막힌다. 동맥이 혈전으로 막히면 혈류 공급이 되지 않아 조직이 죽게 된다. 이런 증상이 뇌동맥에 발생하면 뇌졸중을 일으킨다.

혈전은 몸속 혈관을 치유하는 기전 중 하나로 반드시 나쁜 것으로만 보지 않는다. 그러나 혈전이 과도하게 생기면 각종 질환으로 이어질 수 있다.

혈전증을 일으키는 세 가지 요인으로 혈관벽 손상, 혈류의 저하, 혈액 성분의 변화가 꼽힌다. 이런 요인들이 발생하지 않도록 관리해야 혈전증을 예방한다. 혈관에 혈전이 생기지 않도록 예방하려면 규칙적으로 운동을 해야 한다. 특히 과식을 하지 않고 담배와 술을 멀리해야 혈관벽에 손상을 줄인다.

정맥에서 흔히 일어나는 심부정맥 혈전증은 오랜 시간 움직이지 않고 혈류가 느려지면서 발생할 수 있다. 주로 거동이 불편한 노인이나 뇌졸중 환자, 수술을 받은 환자에게 발생한다. 장시간 비행기에 앉아 있을 때도 발생하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이를 이코노미 증후군으로 부른다.

약물치료는 혈전 주성분인 혈소판이 뭉치는 것을 막기 위해 항혈소판제(아스피린)를 복용한다. 다만 출혈성 부작용이 생길 수 있어 고위험 환자에게만 예방 목적으로 복용하는 것을 권장한다.

이태승 분당서울대학교병원 혈관외과 교수는 "항혈소판제나, 항응고제는 출혈을 일으킬 수 있어 전문의 처방에 의해 복용해야 안전하다"며 "진료를 받을 때 의사에게 항응고제 복용하는지 알려줘야 위험한 부작용 위험을 줄일 수 있다"고 설명했다.

**임산부 배려석, 누구를 위한 자리입니까?**

세상에 올 소중한 생명을 위해 마련된 자리  
따뜻한 마음으로 임산부와 아이에게 양보해주세요.  
당신의 작은 배려가 더 큰 배려로 돌아옵니다.

한국언론진흥재단